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3.1운동 106주년 기념주일
오늘 주일 예배는 3.1운동 106주년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금주 3월 1일은 각 가정에 태극기를 게양하시기 바랍니다.

3. 3월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다음 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첫날맞이 월삭예배로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성찬준비 : 정애자 권사, 임명순 사모
배종배잔 : 이광근 안수집사(좌측), 한승훈 목사(우측)

4. 예배 반주 섬김 (박제연 집사)
주일 오전 11시 예배의 반주는 박제연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많은 기도와 사랑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5. 연말정산/기부금 영수증 신청
2024년 연말정산서/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담임목사 개인톡으로 신청서(신청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번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성도동정 (건강, 안전, 평안, 행복, 사명, 신앙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오현진(군복무 中), 이다남(병가), 박영대(병가), 임명순(무릎인대파열)
김혜숙 권사(디스크 협착증, 입원), 오민지 집사(출산예정, 2/25)

7. 2025년 3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2.2 ~ 3.3)*
3/16(일)-박태성 성도(-2.17) 3/02(일)-김주하 어린이 3/24(월)-정완희 학생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2/23	다 같 이
3/02	정애자 권사
3/09	박제연 집사
3/16	이광근 안수집사
3/23	임명자 집사
3/30	임명숙 집사
4/06	김혜숙 권사

행사계획

날짜	행 사 내 용
02/23	3.1운동 106주년 기념주일
02/25	아하브코업 홈스쿨 개강예배
03/02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성령주일 / 산상변모주일
03/03	산상기도회
03/05	재의 수요일
03/09	사순절(1주) /태신자 작정(1주)
03/16	사순절(2주) / 태신자 작정(2주)
03/23	사순절(3주) / 태신자 작정(3주)
03/30	사순절(4주) / 태신자 작정(4주)
	선교 한신의 주일(모로코 소개)
04/01	첫날맞이 월삭예배(성찬예식)
04/03	산상 기도회
04/06	사순절(5주) / 태신자만남주간(1)

주일 차량 운영

요일	운 행 안 내
주일	교회출발(9:45)►탑동(10:00) ►화서동(10:10)►세류동(10:20)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탑동(13:40) ►화서동(13:50)►동탄(14:20)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부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 마 학 당	(상담 후 진행)

주사랑 8권 8호 | 2025년 2월 23일
창립 2017.11.25 | 주현후 일곱번째 주/3.1절기념주일

기 독 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①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③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④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⑥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⑦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⑧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제106주년 삼일운동 기념주일) 인도:집례자

※ 묵 도 ····· 시편 146:5~10 ····· 인 도 자

※ 찬 송 가 ····· 찬 2장 ····· 다 같 이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사도신경 ····· 다 같 이

※ 주기도문 ····· 찬 635장 ····· 다 같 이

성시교독 ····· No.99 나라사랑(1) ····· 인도자/회중

찬 송 가 ····· 찬 449장 ····· 다 같 이

(예수 따라 가며)

대표기도 ····· 다 같 이

※ 성경봉독 ····· 신명기 11:22~29 (구 280) ····· 인 도 자

광 고 ····· 인 도 자

말씀인도 ····· 자기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 담임목사

봉헌찬송 ····· 찬 268장 ····· 다 같 이

(헌금위원 : 이재아 어린이)

※ 축 도 ····· 담임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십 일 조 : 한태민 / 아가을 임명순 장시라

주정헌금 : 김혜숙 문재효 박제연 이광근 오동영·임명숙 임명순 임명자 정애자 한승훈/ 아가을 한정완

감사헌금 : 박태성 이광근·박제연(자녀) 전복순 한승훈·임명순 / 아하브코업

교회학교 : 이재우 이재희 한희락 한태민

장학헌금 : 김혜숙 이광근·박제연 임명숙 임명자 한승훈·임명순 무명1

구역헌금 : 김혜숙 박제연 임명순

선교헌금 : 오동영·임명숙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통일선교비전기도회

오후 1:00 ····· 한승훈 목사

대표기도 ····· 맡 은 이

성경봉독 누가복음 5:27~39 (신 97)

말씀제목 새부대가 된 레위, 세리 마태

말씀인도 ····· 한승훈 목사

수요 기도회

오후 7:30 ·····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요한복음 6:16~21 (신 149)

말씀제목 다섯 번째 표적 물위를 걸으심

가정·구역예배(목)

오후 2:00 ····· 부모님 중

성경봉독 시편 146:1~10 (구 908)

대표기도 ····· 자녀들 중

말씀제목 3.1절 자유민주주의 운동

심야기도회(금)

오후 7:30 ·····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누가복음 7:1~10 (신 100)

말씀제목 말씀만 하소서, 이루어지리이다

새벽 기도회

새벽5:30 매일성경 (월~금)

23일(일)	눅 5:27~39	새부대에 복음을 담은 레위
24일(월)	눅 6:1~11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25일(화)	눅 6:12~19	사람을 낚는 어부들
26일(수)	눅 6:20~26	예수 안의 복 예수 밖의 화
27일(목)	눅 6:27~38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28일(금)	눅 6:39~49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29일(토)	눅 7:1~10	말씀만 하소서 이루어지리이다
30일(일)	눅 7:11~17	청년아 일어나라!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국내선교(오주교훈홈스쿨)

이재우·재하 재아

훈스쿨링

성경적 가정

복음적 다음세대

해외선교(모로코)

함베드로 선교사

안사랑 선교사

모로코

캠퍼션 파송

소리 단이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교단총회 행존부서

북한선교정책수립

북한성결교회재건

북한이탈주민정착

통일선교학교

기타 기관 선교

오픈도어즈선교회

모퉁이돌선교회

한국장애인선교회

한국북한선교연구소

한국성결신문

한국장애우고용마을

⑥ **남 유다의 죄악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졌는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렘 8:10~11)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 )은 자로부터 ( )까지 다 욕심내며 ( )로부터 ( )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 )하다, ( )하다 하나 ( )이 없도다

⑦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렘 8:18)

슬프다 나의 ( )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 )들었도다

⑧ **회개하지 않는 유다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비통함을 느끼는 예레미야는 자신의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나요?** (렘 9:1~2)

어찌하면 내 머리는 ( )이 되고 내 눈은 ( )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 )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 )하는 자요 ( )의 무리가 됨이로다

⑨ **하나님은 거짓된 말과 망령된 우상숭배로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백성들을 징벌할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의 무리가 있는 어떤 사람인가요?** (렘 9:23~2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 )과 나 여호와는 ( )과 ( )와 ( )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⑩ **예레미야는 이방 나라에서 들여온 우상과 그 교훈은 무엇이며, 그것을 섬기는 자들의 결말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나요?** (렘 10:3~5, 11)

[3]여러 나라의 풍습은 ( )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4]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5]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 )를 주거나 ( )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11]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 ) 하라

⑪ **우상들과 구별되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렘 10:10)

오직 여호와는 ( ) 하나님이시요 ( )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 )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해드립니다)

성경공부 : 2025-8주 / 예레미야 5장 ~ 10장

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파악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나요?** (렘 5:1~2)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　　)를 행하며 (　　)를 구하는 자를 (　　) 내가 이 성읍을 (　　)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②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가 회복할 수 있는 일말의 소망마저도 완전히 끊어진 놀라운 일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렘 5:30~31)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　　)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　　)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　　)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③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무엇을 경고하나요?** (렘 6:8)
예루살렘아 너는 (　　)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④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은 무엇의 결과라고 했나요?** (렘 6:16~17, 19)
[16]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　　)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17]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　　)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19]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　　)라 그들이 내 (　　)을 듣지 아니하며 내 (　　)을 거절하였음이니라

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세 번이나 거듭 부인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회복할 방법은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렘 7:4~7)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　　)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　　)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　　)과 (　　)와 (　　)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　　)를 이 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　　)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 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향기로운 삶 : 기독교가 기초를 닦아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5)

1919년 3월에서 5월까지 1,500여 회에 걸쳐 200만 명 이상이 전국 218개 군 중, 211개 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3.1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의 교세는 전체 인구 2,000만 명 중, 35만명에 불과했습니다. 전 국민의 1.3%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주축이 되어, 조선의 독립과 자유, 대한의 건국을 꿈꾸는 운동이었습니다.

3.1절 민족항쟁으로 숨진 이는 7,500여 명, 실종자 15,000여 명 , 부상자 16,000여 명 , 검거된 자는 47,000여 명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희생된 사람은 기독교인 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 인사였습니다. 그 당시 천도교인 200만명, 유교 불교인 300만 명을 넘어서는 교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만세운동으로 체포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2,039명 천도교인 1,063명, 유교인 55명, 불교인 41명으로서 기독교인이 60%이상을 차지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가 남긴 비밀 문건 속에는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교회다"라는 기록을 남길 정도로 기독교인들은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3.1 운동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비폭력 평화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3.1운동으로 47개의 예배당이 불태움을 당하였고 많은 신앙인들이 총검에 찔려 죽거나 체포되어 감옥에서 참기 힘든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수원 제암리에서는 교인들이 예배당에 갇혀 불태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3.1만세 시위가 고조될 즈음에 서울에 뿌려진 [독립단 통고문] 은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의 투쟁 방법론을 **①일본인을 모욕하지 말 것. ②돌을 던지거나 주먹을 치는 등의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③매일 기도와 성경묵상 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3시에 기도하고 주일은 금식하며, 월요일 이사야 10장, 화요일 예레미야 12장, 수요일 신명기 28장, 목요일 야고보서 5장, 금요일 이사야 59장, 토요일 로마서 8장을 읽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최남선은 선언서를 기초하면서 기독교 이념을 수용, 민족의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보편적 가치관과 인류 공존을 지향하며 비폭력 평화를 중심으로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곧바로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3·1운동은 대한민국에 자유의 씨앗이 뿌려진 날이었고, 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정신의 태동이 되었으며, 1950년 6.25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대한민국의 의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가	찬 208장	다 같 이
대표기도		진 행 자
성경봉독	시편 146:1~10 (구 908)	맡 은 이

3.1운동은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건국운동의 초석입니다

합심기도		다 같 이
헌금찬양	찬 210장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1919년 3월 1일 정오! 자유를 외친 조선은, 1945년 해방을 통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대한독립은 대한의 자유를 표명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건국하자는 표명이야말로 3·1운동 정신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는 세력은 건국세력이고, 그 중심엔 우리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1919년은 3·1운동은 대한민국에 자유의 씨앗이 뿌려진 날이었고, 1948년 7월 17일은 임시정부 수립으로 대한민국이 태어난 해였으며, 1950년 6.25 전쟁은 대한민국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시기였으며, 1953년 7월 27일은 휴전협정은 자유수호를 위한 승전일이기도 합니다.

1919년 3.1 운동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의 기틀을 만들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건국운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3.1운동은 1948년 대한민국을 만드는 토대석이 되었습니다. 3.1운동 이후, 그해 4월 10일, 대한민국임시헌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운영 방향을 <10가지 조항>으로 명시한 임시헌장의 99% 이상을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이 계승한 것입니다.

1897년 10월 12일 조선은 황제의 나라인 <대한제국>을 선포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대한제국은 황제의 나라, 고종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1919년 상해임시헌장은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대한제국이라는 왕조에 종언을 고지한 것입니다. 경신학교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습득한 기독교인들이 제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을 만들자고 했고, 그 중심엔 도산 안창호가 있었습니다.

복벽주의가 사라지자 1919년 3.1운동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라는 시대적 암초에 직면했습니다. 1917년 공산주의를 주창한 볼셰비키 혁명의 발발로 1918년 1차 대전이 끝나고 윌슨 대통령은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식민지는 지배국가에서 자유로워져 스스로 주권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택할 수 있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지했던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대부분은 러시아에서 열린 세계 공산당 회의가 아닌, 1차 대전의 종언을 선언했던 파리 평화회의에 외교대사를 파견했습니다.

3.1운동 이후 제정된 임시헌장 제7조는 '대한민국은 신(God)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국가로 국제연맹(UN)에 가입하여 인류의 문화와 평화 증진에 노력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결국 3.1운동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대한민국이 편입하겠다는 선언"이며 윤치호 선생도 '미국은 돈이 많아서 관대하고, 다른 나라와 싸워 복수하려들지 않고, 땅이 넓어서 영토 점령 욕구가 적다'고 자신의 저서에 기록했습니다.

당시 일제강점기에 파견된 서양 선교사들은 조선에 교회, 병원, 학교 등을 세워 선교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선교사들의 행동을 통해 미국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으며, 3.1운동을 기점으로 한민족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서구 질서에 편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외부 강요가 아니었으며, 조선인 스스로가 선택한 건국의 방향이었습니다.

특히 3.1운동은 대부분 기독교가 주도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1918년 11월 기독교인 이승만 박사는 1차 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 박사를 중심으로 대한국민회은 윌슨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냈으며, 비슷한 시기 중국 상해에서 상해한인교회 청년들이 주축이 된 신한청년당은 향후 중국과 일본이 미국의 적대국가가 될 수 있다며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유일한 기독교 국가인 대한민국만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할 나라>라며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원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3.1운동은 천도교와 기독교의 합작이지만, 대부분의 희생자는 기독교인이었으며 기독교 학교를 통해 3.1운동은 삽시간으로 전국으로 확산됐고, 이 소식을 해외로 전하는데 기독교가 통로 역할을 했다며, 3.1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간 상해임시정부도 정동제일교회 담임 현순 목사와 상해한인교회 청년들이 먼저 중심이 돼, 이후 대종교 세력이 합류한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현순 목사에게 기독교 정신을 상해임시정부 헌장에 첨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선언문의 맨 마지막엔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신(神)이 세 번이나 기록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또한 미국식 민주주의에 따라 삼권분립 적시, 신분제와 공산주의 계급제의 부정, 개인의 인권 곧 종교의 자유, 소유의 자유를 명시했습니다.

기독교 정신과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세운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계승한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호인 <大韓/民國>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대한>은 민족적·역사적 개념으로 인류문화사적 국민대통합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국>은 통치·이념적 개념으로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며 통치의 근본적 개념을 갖습니다. 정확한 역사관과 통치이념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가르쳐야 하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틀을 든든히 하는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문, 기독일보 2021.2.27, "3.1운동, 독립 뿐 아닌 대한민국 건국의 출발점-박명수 교수"